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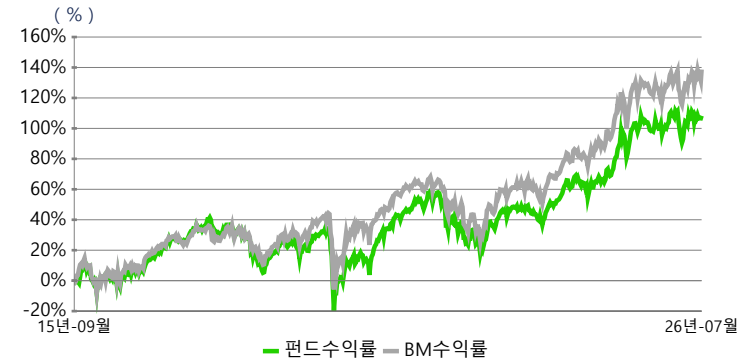
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6-5809051호 (2026.08.04~2027.08.03)

2026년 07월 31일

펀드 목적 및 전략

베어링 독일 증권 자투자신탁[UH]는 독일 주식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이득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유로화에 대해 환율 변동 위험을 조절하는 한해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펀드 운용성과



* 최초 설정일이 2015.09.25인 Class A 수익률 기준입니다.
* 운용성과, 수익률 그래프, 누적 수익률의 성과는 세전 수익률로 미래 운용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각 펀드 클래스의 보수 및 수수료 차이로 인해 운용 실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별 수익률(%)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설정이후
Class A	-4.78	-1.68	-3.62	5.42	63.61	150.77
Class Ae	-4.75	-1.59	-3.45	5.78	65.30	94.24
Class C-P	-4.80	-1.73	-3.71	5.21	62.65	141.98
Class C-P2	-	-	-	9.06	69.59	121.03
Class C-P2e	-4.75	-1.58	-3.43	5.83	65.52	105.60
Class C-Pe	-4.76	-1.62	-3.50	5.68	64.80	103.04
Class C-W	-	-	-	-	-	27.86
Class C1	-	-	-	-	-4.47	38.71
Class C2	-	-	-	-	0.60	-15.74
Class C3	-	-	-	-	0.82	24.38
Class C4	-4.79	-1.70	-3.67	5.31	63.14	172.13
Class Ce	-4.76	-1.63	-3.52	5.63	64.56	163.98
Class S	-4.74	-1.57	-3.41	5.89	65.77	158.93
Class S-P	-4.74	-1.56	-3.38	5.94	66.01	112.14
BM	-3.27	0.29	-0.09	7.06	63.99	17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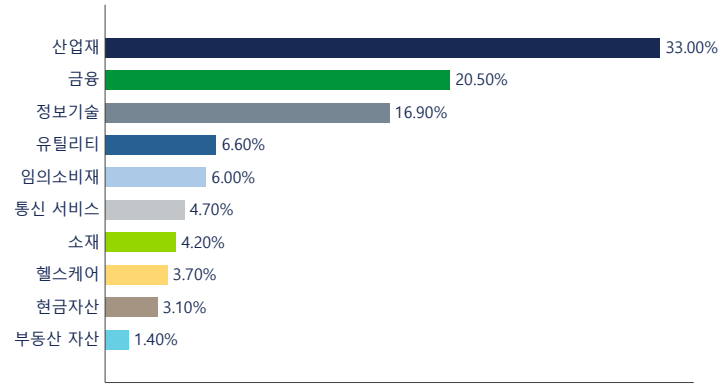
* 각 펀드 클래스의 보수 및 수수료 차이로 인해 운용실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위 10개 보유 종목

종목	구성비율(%)
SIEMENS AG	10.17
ALLIANZ SE	8.02
SAP SE	7.53
SIEMENS ENERGY AG	6.23
INFINEON TECHNOLOGIES AG	5.31
COMMERZBANK AG	4.59
DEUTSCHE TELEKOM AG	4.22
DEUTSCHE POST AG	3.74
MUENCHENER	3.51
E.ON SE	3.51

* 보유비중은 2026.06.30 기준입니다.

상위 10개 업종별 보유 비중



* 보유비중은 2026.06.30 기준입니다.

[투자시 유의사항]

-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개요	
• 순자산*	19억원
• 기준가	2507.66원
• 펀드설정일	2016.04.05
• 신탁업자	하나은행
• 합성총보수·비용(연,%)	
종류 A: 1.604	(운용:0.1,판매:0.7,신탁/사무:0.054기타:0.75)
종류 Ae: 1.2543	(운용:0.1,판매:0.35,신탁/사무:0.054기타:0.7503)
종류 C-P: 1.804	(운용:0.1,판매:0.9,신탁/사무:0.054기타:0.75)
종류 C-P2e: 1.2045	(운용:0.1,판매:0.3,신탁/사무:0.054기타:0.7505)
종류 C-Pe: 1.3543	(운용:0.1,판매:0.45,신탁/사무:0.054기타:0.7503)
종류 C4: 1.704	(운용:0.1,판매:0.8,신탁/사무:0.054기타:0.75)
종류 Ce: 1.4041	(운용:0.1,판매:0.5,신탁/사무:0.054기타:0.7501)
종류 S: 1.154	(운용:0.1,판매:0.25,신탁/사무:0.054기타:0.75)
종류 S-P: 1.104	(운용:0.1,판매:0.2,신탁/사무:0.054기타:0.75)
• 투자위험등급	3등급(다소높은위험)
• 선취판매수수료	1.000% (A) 이내, 0.500% (Ae) 이내
• 후취판매수수료	0.150% (S) 이내·3년 미만 환매시
• 환매수수료	없음
• 환매대금지급기준	17시 이전 :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 : 제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벤치마크	MSCI Germany investable Market Index (IMI)(Net Total Return) Index EUR(T-1)(KRW) X 90% + MMI_CALL X 10%
* 순자산 규모는 운용펀드 기준	
※합성보수비용은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설정 1년 미만인 클래스의 경우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직전 회계연도 증권거래비용:종류 S(0%),종류 C1(0%),종류 C-W(0%),종류 Ce(0%),종류 C-P(0%),종류 A(0%),종류 C-P2(0%),종류 S-P(0%),종류 C-Pe(0%),종류 C-P2e(0%),종류 Ae(0%),종류 C2(0%),종류 C3(0%),종류 C4(0%)	
※직전 회계연도 증권거래비용은 추정치를 사용하였기에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은 상이할수 있으며 설정 1년 미만의 펀드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투자자 유의사항

- 이 운용보고서는 베어링자산운용에서 작성한 것으로 펀드 가입자의 상품 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과 의견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고서의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나 방법으로 내용의 무단복사, 사진복사 또는 복제될 수 없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연금펀드의 경우, 중도해지나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시 기타소득세, 해지 가산세 부과 등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율과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기준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산, 주요종목, 국가별 비중은 운용펀드 내 비중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기준 산출).
- 해당 자료는 펀드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펀드의 투자광고 및 투자권유를 위해 작성된 자료가 아니며, 베어링자산운용 홈페이지 게시 외에는 본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 투자광고 또는 투자권유의 목적으로 제시되거나 제공될 수 없습니다.



BARINGS.COM
베어링자산운용

[투자시 유의사항]

-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